

5·18 정면으로 다룬 '화려한 휴가' 광주 시사회

시대의 아픔 동참한 시민들의 삶 가슴 저릿하게 보여준 휴먼드라마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극화한 것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이같은 자막과 함께 시작된다. 폭 27년 만이다. 광주 사람들에게는 '실제 사건'이지만 200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5·18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등장한 것이다.

8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화려한 휴가'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목숨'까지 버리며 항쟁에 뛰어든 수백에 달하는 사연과 이유들을 가슴 저릿하게 보여준 휴먼 드라마였다.

'10일간의 항쟁' 세심히 묘사

제작자 유인택씨의 말처럼 '5·18'이라는 산맥같은 큰 사건'을 두 시간짜리 드라마로 녹여낸다는 건 힘든 작업이다. 부담과 기대, 격려까지 짊어져야 했던 제작진이 내놓은 영화는 '10일간의 항쟁'을 사실적으로 강도높게 묘사하며 특이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주인공은 택시 기사 민우(김성경 분).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진우(이준기 분)만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민우는 간호사 신애를 짝사랑한다. 어느날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진우의 죽음을 목격한 민우는 애인, 아들, 친구를 잃은 '시민'들과 총을 든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시민



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 쳐도 동생과 나에게는 아무 것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던 민우, 황금다방 아가씨와 연애질하기 바쁜 양아치 응배, 평범한 택시 운전사 인봉 등. 실제 취재 과정 등을 거쳐 뽑아낸 캐릭터들의 조합이 다소 산만하기

는 하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피상적으로 인식될지도 모를 '5·18'에 살을 붙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영화에 여백을 주는 초반부의 코믹 코드와 평범한 일상 역시 후반부의 비극적 슬픔을 더 아릿하게 만든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김성경은 투박한 듯하면서 소박한 '택시기사'역을 잘 소화해냈으며 이요원, 안성기 등도 극을 잘 받친다. 또 나문희를 비롯, 한 두마디 대사를 하는 조연진들까지 꼭 찬 연기를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인상적인 장면도 많다. 특히 도청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 후 시민들을 향해 총탄 세례가 쏟아지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또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죽어가는 민우의 모습, 마지막 가두방송을 하는 신애의 모습은 눈물샘을 자극한다.

생생한 캐릭터 감동의 물결

이날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객석에서는 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5·18유족들은 물론이고 10대~20대 젊은층 역시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대구 출신인 김지훈 감독은 서울 시사회에서 '너무 과장되게 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했다. 수위를 낮췄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영화 관람 후 유족들은 공식적인 말을 아꼈다. 대신 모두가 마음으로 바라는 건 하나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 주는 것. 그래서 광주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는 것.'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美 CSM "화려한 휴가" 개봉으로 5·18 재조명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화려한 휴가' 개봉을 앞두고 이 영화가 한국인들의 관심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당시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이 9일 보도했다.

'5·18' 당시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도널드 커크 기사는 기사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 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이 운동이,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고 10년만에 보수 정치집단의 집권이 유력한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커크는 일부 지나친 극적 장면의 삽입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영화는 당시 분위기를 비교적 잘 살리고 있다는 증언자의 평가를 인용한 뒤, 당시 광주에서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를 연상케 하는 충격에 의한

살상과 곤봉, 총검을 이용한 진압 과정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커크는 "반미감정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을 그린 영화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색'이 많이 배제된 것은 의의"라며 "이는 아마도 최근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상당히 사그라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철뉴스

현대문명속 인간들 소외와 고독

정숙영 교수 '디지털 회화-형상'展 11~17일 광주 신세계 갤러리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숙영(광주여대 교수)의 작업은 독특하다. 정 교수는 인물이나 풍경을 스케치한 기존 작품들과 달리 디지털 매체를 이용, 회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원화(드로잉)를 제작한 뒤 컴퓨터를 통해 원화를 변형·왜곡하는 과정을 거쳐 출력한 프린트를 최종 버튼치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그가 '현대회화의 비정형 이론과 형상전이 연구'라는 주제로 홍익대 대학원(미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11~17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디지털 회화-형상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인물 드로잉을 통해 삶과 현실의



'주목'

이중구조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표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바코드를 소재로 한 'Tele-cloning'은 현대문명 속에 살아가

는 인간들의 소외와 고독을 화폭에 옮긴 것이다.

작품들의 주조를 이루는 반복, 변형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전경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인간본성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유재길 홍익대 교수는 "중첩되면서 실상과 허상의 이중세계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정씨의 작품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발바흐시 초대전, 현대회화 방향전 등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광주미술협회 이사, 전남대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360-123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매 이벤트·아트페어 올 하반기 미술시장 뜨겁다

올 하반기에 미술경매 이벤트와 아트페어 등 대규모 미술품 판매행사가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진다.

화랑미술제(10월11-15일),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10월19~11월1일) 등 기존의 미술장터 이외에도 신설되는 행사들이 많아 경매와 아트페어가 미술투자 붐을 이끄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술품 경매전문회사 서울옥션은 9월12-16일 코엑스 3층 컨벤션 홀에서 '아트 옥션 쇼 인 서울(Art Auction Show in Seoul)'을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서울옥션의 정기 경매와는 다른 형식의 행사로, 서울옥션은 크리

스티, 소더비, 필립스 등 서구경매사나 일본 신와아트옥션, 중국 자더경매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서울옥션의 108회 경매 출품작을 소개하는 프리뷰는 물론 국내 주요작가 50명을 선정한 작가관, 한국 근현대 거장전, 고미술, 해외미술관 등을 마련해 작품을 보여주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하루 내내 부분별 경매를 실시해 작품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국내 상업화랑들도 상당수 참여하며, 미술품 투자 리스크 줄이기,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경매와 아트페어, 투자정보 안내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행사로 열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대구 화랑들이 중심이 된 제1회 대구아트페어(DAF)가 12월12-16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다. 또 8월에 대구 MBC와 K옥션이 만든 옥션 M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울 못지 않은 미술 열풍이 불 예정이다.

화랑 약 50여곳이 참여할 대구아트페어에는 대구를 포함해 광주, 부산, 대전, 마산, 포항 지역의 화랑들이 참여하고 서울지역 화랑도 20-25곳이 참여하며, 해외화랑도 일본, 대만, 중국,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각 한 곳씩 6곳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연철뉴스

김상훈 아쟁 독주회

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쟁 연주자 김상훈(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사진)씨 세번째 독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박종선류

아쟁산조', 아쟁을 위한 태평소 '시나위', 가곡 '자진 한 잎', '유초신지곡' 중 '타령-군악' 등을 들려주며 이태백(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장), 김진성(대금), 이흥근(피리), 이양재(타악·

사회)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남대와 한국종합예술학교 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김씨는 서울국악실내악단 단원, 아쟁 앙상블 'ARCO'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목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병천·박종선·신상철 선생을 사한 김씨는 올 4월에는 아쟁창작곡집 '김상훈-KIRIE'를 출판했다. 문의 011-9026-5447.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이제야 휴가한다!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덕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3관	오션스13 (12세)
4관	4.4.4. (18세) / 검은집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택시4 (12세)
7관	디센트 (18세)
8관	검은집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씨노이볼 (18세)
6관	슈렉3 (전세) /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할토시영 영화시영 *에매-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역면)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아리아(전용관)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디센트 (18세)
6관	슈렉3 (전세) / 황진이 (15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택시4 (12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전용관) 뷔페 (이전 or 전) -이전

콜롬버스 해남점 (107명) 정관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디센트 (18세)
2관	택시4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전세)
8관	택시4 (12세)
9관	오션스 13 (12세)
10관	검은집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석 회원만을 위한 전용영구 비면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

시영은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디센트 (18세)
5관	오션스13 (12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